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사랑 제목 : 네 몸과 같이 하라 성경:마태복음 19장
16-30절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

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래에 ‘아내나’가 있음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19:16-30)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네 몸과 같이 하라’이다.

어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 평상시 너무 고민했던 주제를 물었다.

이 청년은 오랫동안 행하고 믿던 말씀이지만, 확신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어린이 몸으로 어른 구두 신어보고 싶은데, 신어보니 잘 맞지 않고 불편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

–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 얘야, 무엇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악하니 선한 사람이 될리는 없고, 다만 악하더라도 선행을 할 수 있으니 선행을 행하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선한 행동이다.

(사람들도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착하다고 한다.)

. 사실 선한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악하지만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으니 선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 짚은이는 무슨 계명인지 궁금했다.

. 예수님은 십계명이라고 대답하셨다.

– 짚은이는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가 다 지켰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계명이 있으면 내가 도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은 더 적극적인 십계명이셨다. 소극적으로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몸을 불살라서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순전하고 열정적인 사명인 양 지키는 것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젊은이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사실 적극적 실천은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진다.

.고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중요하다.

.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즉 욕심내지 말라는 것인데, 주님은 십계명의 강령, 즉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 하셨다.

-10번째 계명은 소극적인 계명이지만, 적극적으로 바꾸셨다.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19:18)

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약2:8)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5:14)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9) -모두 한 뜻

-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청년은 그런 가르침 정도는 이미 초등학교때 다 지켰으니 더 큰걸 말씀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청년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보렴. 그러면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왜냐면 사람은 나누어 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이 나고 성령으로 충만해 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청년이 아직 자기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어서 어른 구두를 신을 수 없지만, 그냥 말 그대로 순전하게 순종했다면 그는 가장 큰 제자가 되었으리라.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지 못하여 크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하였으리라.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많은 열매가 있다. 여러배를 받는다. 영생만 받는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배를 받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서 보상 받을 생각 말고 저 세상에서 줄테니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를 놀리지 않으셨다.

윤리의 핵심 기준도 우리에게 주셨다. 도데체 얼마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네 몸을 사랑한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렴.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이 기준이다.

-내가 나를 위하는 만큼이 기준이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가족을 챙기는 만큼이 표준 기준이다.

-그 만큼 잘 해 주는 것이 기준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두가지 오류를 범해 왔다.

-자기를 사랑한 만큼 남을 사랑하지 않는 오류.

-자기 자신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오류. -충분히 이기적이지 않는 오류. 충분히 이기적이면서 그만큼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 정답. 매우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뜻.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됨. 성령충만이 아닌, 깨달음, 고행, 많은 세월이 지남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사실은 짹퉁 복음. 천국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게 됨.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찬양예배>

주제: 건강 제목: 투병의지 말씀: 요한복음 5장1-15절

-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훌기 미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 4 이는 천사가 가끔 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요 5:1-15)

- 투병의지를 일깨우라.

- 38년 된 병자에게 남은 것은 이것 뿐.
- 그는 자기 곁에 아무도 없었다. 그만큼 그는 관계에서 실패하였다.
-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뜻한다.
- 행각 다섯에 많은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림.
- 이 사람은 이제 나을 때가 찼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신 것이다.